

9월 월간보고서

작성일: 2012년 10월 13일 일요일

파견 국가: 동티모르

파견 기관: YMCA of Timor-Leste

1. 현지 활동

-기관 활동

(1) 국제평화캠프



도착하자마자 이를 후에 티모르YMCA에서 주최하는 국제평화캠프에 참여했다. 모두 티모르에 오

자마자 캠프를 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소하고 편안한 캠프여서 쉽게 참여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캠프의 프로그램으로 다 같이 바다도 가고 동티모르에서 유명한 명소도 몇 군데 가볼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 온지 일주일 만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약 열흘간 진행된 캠프가 생활하는 면에서는 힘든 면이 없지 않았지만 팀원들에게 생각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좋았고 다시 캠프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어렵게만 생각했던 캠프였는데 생각보다 쉽고 부드러워서 좋았다. 그리고 'Country Report(4대강)'를 준비하면서 팀원들끼리 나눔한 것도 좋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우리나라 상황에 밝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평화캠프의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막연하기만 했는데 캠프가 전체적으로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참여가 수월했다. 티모르 Y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여서 그런지 처음 티모르에 와서 티모르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방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좋았다. 일정이 연기되거나 그때 그때 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고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 참가자들이 축구 코치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학생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여자 단원들은 아쉬웠던 점이 있다. 남자들처럼 일정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티모르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여자 단원들은 집에 돌아와서 다들 씻고 자기 바빴다. 남자단원들은 밤마다 마을 청년들과 게임도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안면도 많이 익히고 서로의 나라의 노래나 춤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

처음엔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환경문제발표, 국제캠프라는 이름 등으로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티모르 청년들이 잘 이끌어줘서 좋았고, 제로니모 간사님의 아이스브레이킹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식사 시간을 잘 맞춰서 준비해줘서 좋았고,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정말 이틀째부터 편해지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말을 잘 못해도 눈치껏 잘 이해해주고 수궁해줘서 고마웠다. 티모르 청년들이 호칭에도 신경 써주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 새로운 문화체험이라는 점도 너무 좋았다. 언어가 수월히 통하지 않는데도 소통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관계 맺기가 굉장히 좋았다. 다같이 청년들과 달리 시내를 구경하고 보면서 청년들이 설명해주는 것도 좋았다. 처음 티모르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 좋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식으로 미사를 드렸는데 분위기나 느낌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좋았다.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그리고 국제 캠프니까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통역관련 문제도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신경이 쓰이는 문제는 김진하 단원이 삼일쯤 지났을 때 새벽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잠에서 깬 적이 있었다. 눈을 떠보니 옆에 어느새 티모르 청년 '아제'가 와서 자고 있었고 그 친구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다. 저 친구의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고 잠까지 깬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친구가 이상한 건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했다.

(2) 떼뚱어 수업

캠프가 끝나고 추석연휴를 보낸 후 본격적인 기관활동이 시작되었다. 현지 간사님들과 상의한 결과 한달 동안은 오전에 현지언어인 떼뚱어 공부를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오전에 현지 간사님들께 떼뚱어 수업을 들으면서 팀원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솔직히 초반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캠프 때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물어보며 배웠던 건 쉬웠는데 수업을 시작하면서 책으로 보고 배우려니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 문법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서 너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귀엽게 느껴지는 단어가 많아서 조금 위안이 된다. 어쨌든 책으로 배우는 건 재미가 없어서 걱정이다. 책보다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배웠던 단어들이 훨씬 더 쓸 데가 많지 않나 싶을 때가 많다. 떼뚱어 수업을 진행해주시는 '파티' 간사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많이 신경을 써줘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배운지 2,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떼뚱어보다 영어가 먼저 나오는 것은 확실히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운걸 써먹었을 때 아이들이나 현지인들이 알아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

수업 과정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의문사, 인칭 등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처음부터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하니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다. 떼뚱어-영어 사전이 있으나 굉장히 제한적인 단어만 수록되어 있는 것도 많이 아쉽다.

전 기수들은 일주일만 배우고도 잘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달이나 배워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일주일만 배웠으면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한 달이나 배워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덜하니깐 현지어가 더 늘지 않는 것 같다.

2. 파견 기관 현황

-YMCA of Timor-Leste

(1)티모르 Y

아직 매일 같은 때뚱어 수업과 아이들과 노는 시간만 가지고 있어서 이곳 티모르Y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총장님과 간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과 함께 PT를 해주셨지만 그곳에 나와있는 활동들이 모두 진행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팀원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다.

평화 캠프 중 하루는 다들 너무 즐거운 나머지 마을 청년들이 센터 앞에서 너무 밤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떠들게 되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올 지경까지 왔지만 다음 날 항의한 마을 주민들이 다시 현지 간사님께 찾아와 대화를 하고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곳 센터가 마을 주민들과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축구 트레이닝은 근래 들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캠프 때 한국인 감독인 '김신환 감독'의 팀과 시합을 했는데 Y팀이 졌지만 왜 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엄청 잘했다. 그래서 역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선수들이라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래 들어 센터에서 보

이는 훈련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 코치들도 좀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고 훈련 시간도 정기적이었으면 좋겠다. 환경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강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장의 모래입자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모래바람이 불게 되고 돌도 많다. 그리고 한쪽 골대 뒤편에는 바로 도로가 있어 연습을 하다가도 공이 도로로 자주 넘어간다. 그 공을 주우러 가는 선수들도 위험하지만, 그 돌을 피하려고 하는 차나 오토바이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센터가 마을 청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타 등의 물품을 구비해 놓는다던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문제가 많은 티모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인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도서관을 전에는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왜 치웠고 왜 책들이 모두 창고에 들어가 있는지 의문점을 던져 볼 생각이다.

3. 현지에서의 생활

각자 현지 이름을 받았다. 권순걸 단원은 LINO, 박새롬 단원은 SOFIA, 서지안 단원은 ELIZA, 김진하 단원은 ANIS이다. 한달 가까이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센터에 출근하면서 타는 대중교통과 그것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숙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숙소에서는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술선수범하는 것이 좋다. 팀원들이 서로 규칙을 잘 지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팀원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지출된다. 첫 달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음달에도 이번 달처럼 사용하면 팀원들의 사비를 수급해서 사용해야 될지도 모른다. 조금 더 아끼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다.

센터에 출근할 때는 'Microlet'이라는 미니버스를 타는데 우리나라의 '다마스'와 비슷한 크기이다. 굉장히 많이 다니고 가격도 싸다.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고, 타고 싶은 곳에서 탈 수도 있다. 거의 매번 현지인들과 몸을 부대끼며 좁게 타고 가야 한다. 현지 청년들이 안에 자리가 없으면 문에 매달려서 가기 때문에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점점 신호등이 생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끔 일정이 늦어지거나 많이 피곤하면 택시를 타기도 하는데, 미터기가 없어서 타기 전에 항상 흥정을 해야 한다. 흥정을 해도 내릴 때가 되면 말을 바꾸는 기사들도 많다. 돈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화내고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센터 운동장에 제복을 입은 남자들을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왔다. 트럭에서 남자들이 긴 창을 들고 우르르 내리더니 우리 앞에서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염소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현지 간사님한테 듣기로는 도시미관 문제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든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와중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게 염소들을 죽이고 가져갔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현지 음식들이 팀원들 모두의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우리끼리 요리를 해서 먹어서 상관없지만 평화캠프 기간이나 가끔씩 현지 도시락을 먹을 때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다. 특별히 물갈이를 해서 배가 아팠던 단원들도 없고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 좋다.

캠프기간 때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할 정도였다. 내가 생각에 잠겨서 조금만 인상을 쓰고 있어도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물어온다. 그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다고 보이게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